

연중 제3주일(사회복지주일)

제1독서 : 느헤 8, 2-4, 5-6, 8-10

제2독서 : 1고린 12, 12-30

복 음 : 루가 1, 1-4; 4, 14-21

순정이

“주께서 나에게
기쁨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루가 4, 8)

강론

자비로운 사람



이재후 신부/사회사목국장

지난 성탄절에는 영광스럽게도 밤미사를 익산공소에서 신자들과 함께 드릴수 있었습니다. 미사를 마친 후 교우들에게 “성탄을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더니 대뜸 “신부님, 돼지좀 팔아주세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자들에게서 성탄의 기쁨은 찾아볼 수 없었고 풀이 죽은 모습들이었습니다.

내용인즉 사료값은 곱절로 폭등했고 그나마 현찰이 아니면 살수도 없답니다. 거꾸로 돼지는 값이 절반이나 떨어졌고 사려는 사람도 없답니다. 90킬로그램짜리 돼지를 십팔만원에 팔아달라며 한숨짓던 얼굴이 떠오릅니다.

03=F학점 (구제불능) 대통령 정치가 모든 것을 망쳐 놓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각박하고 실의에 빠져있거나 그 원인을 규명하며 누구의 탓인지를 가려내고만 있을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잘못되었다면 같은 시대를 살아왔고 지금도 그 구조속에서 살고있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만이라도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진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꺼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희생과 봉사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구에도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선의의 사람들과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의 가르침에 따른 사랑과 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외받는 가난한 이들은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대하여 섭섭함과 고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복음적 삶과 증거에 있어서 너무나 미흡합니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등 불우한 형제들에게 교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가 3, 36)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죄인 등 모든 불우한 형제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참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너



희가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 40). 요즘처럼 모두가 어려울 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넉넉지 못하면서 나눌 수 있는 사랑만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쓴맛 단맛

정 인 섭(안드레아)

세례식이 그해 십이월 십구일이었으니까 대림절 막바지였다. 그러니까 전례주기로 보면 새해 들어 서면서 신자가 된 셈인데 그 대림절은 뭐가 뭔지 모르고 지나갔다.

그러다가 이월이 되어서 사순절이 시작되었다. 늘 그렇지만 들뜨고 어수선했던 대림절보다는 조금 무겁고 차분한 사순절이 내 마음에 더 가까웠었다.

그후 몇해가 지난 다음 '빠스카' 신비에 대해서 맛을 알게 되었다. 그맛이 알고보니 부활의 맛이었던가 보았다.

“김선생! 요새 얼굴이 피었네! 뭐 좋은 일이 있는 개비네!”

“있지. 텔레비전 뉴스 보는 재미로 살아 요새.”

“그렇구만! 지난번 선거 이후로 입을 다물 줄을 모르등만 그러. 날마다 좋은 날인개벼.”

두 얼굴빛이 아닌 게 아니라 활짝 피었다. 아이 엠에프 시대 얼굴은 잔뜩 오그라들고 쩡그러야 한 다던데 이 둘은 딴 나라 사람들인가?

그렇지만 알고 보면 이 두 사람은 이 지방의 평범한 중년 남자들로서 이번 선거에서 자신이 찍은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하루하루가 사실 신이 나고 몸속의 피도 기운도 예사스럽지가 않게 잘 돌아가는 중이다.

요새 무엇이든 물쓰듯하며 커운 젊은 족들은 가난이며 절약이며 쪼들린다는 말 같은 것은 모른다고 봐야 할 것이다.

못 살아본 사람이라야 잘 산다는 것이 허벅지 살 꼬집기로 놀랄 일이지 늘 풍족했던 사람에게야 넉넉함이 무슨 감사나 행복의 조건일 수 있으리.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 우리가 겪고 있는 '아이엠에프 한파'라는 것도 예전에 사는 것이 힘들던 시절을 지나온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일이면서도 어쩌보면 반가운 추억을 다시 만난 듯도 한 것이다.

억지스러운 자기위안일 수도 있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에 절약하고 아끼면서 살던 때가 그리기도 해진다.

휴지로 쓰려고 신문지를 소중히 모으고 가위로 오리던 일, 겨울이면 양말을 꿰매느라고 시린 전등불 아래서 전구알을 넣고 바늘땀을 뜨던 일, 밤참으로 고구마나 무우 깎아먹기가 그렇게 맛나고 행복했던 일, 시내버스 타며 흔들리고 밀려도 도무지 불만스럽지가 않던 일, 단무지 채무침이며 김치 조금이면 무척 맛나던 도시락 찬밥.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헛배불러 잘못될까봐 적당한 때 잘 맞춰서 옛시절을 돌아보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 형제!

□ 정말 괜찮은 지도자를 나라에 주셨고 쓴맛이 단맛이고 단맛이 쓴맛이라는 걸 정말 생생히 체험케 해주시는 하느님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매!

□ 사순절이 기다려진다. 겨울 다음에는 봄이 오고 사순절이 꼭 차면 부활이 온다.

아! 이 얼마나 복된 섭리인가.

복된 고통에 복된 추위다.

힘들수록 잘 여무는 나무열매처럼 우리의 하루 하루도 그렇게 잘 여물기를!

숲정이 산책



주님이 계시기에 >>

사제품을 기다리며 !

김형수(바오로)부제/숲정이성당



9년전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불 보따리 하나 들고 신학교에 첫발을 들여놓은 일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사제품을 준비하고 있다.

신학교에서의 생활이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음은 아직도 내가 너무 부족한 탓이라!

주님을 따름에 있어 너무도 부족한 자신을 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볼 때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기에 이렇게 부족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은 모두 주님의 은총이라 생각한다.

사실 신학교에 입학해서 오랜 시간을 몽상에 빠진 사춘기 소년과 같이 수많은 허상 속에서 살아왔다. 그리고 그 허상들이 하나씩 깨어질 때마다 고민과 갈등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꿈들 속에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나를 조금씩 다듬어 왔다는 생각이 든다. 주님께서 더 잘 다듬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내놓아야 한다. 용기장이 손에든 진흙과 같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놓아야 한다.

지난 시간의 아쉬움은 접어두고 이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제가 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길 기도 드린다. 항상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 뜻에 따르고 주님을 닮은 사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내 자신의 일을 한 경우가 많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앉아있던 나를 옆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한다. 그것이 사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에.

나는 지금 주님께 나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청하고 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익혀 그분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리라.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 억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에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희망과 기쁨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신 예수님. 하느님 나라를 당신의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배워야 하리라.

사제품을 기다리며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바치셨던 기도를 나도 바쳐본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설 명 절

좋은 설이 다가옵니다. 헤어져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의 은덕을 기억하며 차례를 지내고, 서로 정을 나누며 복을 빌어주는 정다운 때입니다.

함께 모인 가족 친지들이 한국전통양식과 조화를 이루며 조상을 위해 기도 드릴 수 있는 차례예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선조들을 기억하는 차례(茶禮)예식

기억하고 싶은 선조의 사진을 준비하고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을 차려놓는다.
은가족이 상 주위에 둘러앉아 준비된 초에 불을 밝힌다.

가장이 간단하게 취지를 설명하고 가족들을 기도의 분위기로 유도한다.

1. 성호경

2. 성 가 : 가톨릭 성가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부른다.

(예를 들어 28장, 59장, 423장, 50장 등)

3. 독 서 : 다음의 성서 구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봉독한다.

- ㉠ 요한 14, 1-14 ㉡ 요한 15, 1-12 ㉢ 요한 17, 1-26
㉣ 루가 2, 41-52 ㉤ 마태 5, 1-12 ㉥ 로마 9, 1-18



4. 가장(家長)의 말씀

㉠ 선조들을 소개하고 가훈, 가풍, 선조의 말씀을 전해줌.

㉡ 오늘의 집안 현실과 앞으로의 전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

㉢ 하느님의 말씀과 선조의 유훈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권고하고 가족간의 사랑과 일치를 다짐하며 격려해준다.

5. 큰절 : 서열순으로 영전에 큰 절을 올린다(남녀모두).

6. 기도서를 참조하여 사도신경, 부모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부부의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세상을 떠난 부모를 위한 기도, 세상을 떠난 형제, 친척, 친구, 은인들을 위한 기도 등을 선택해서 바치고 위령기도를 바친다(연도를 해도 좋다).

7. 가족들이 돌아가며 하느님께 청하고 싶은 기도를 바친다.

8. 성가 : 가톨릭 성가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445장, 77장, 481장 등).

9. 주님의 기도 : 다 함께 바친다.

10. 식사 : 차례음식을 나눈다. 음복(飮福) - 사랑과 일치의 식사

11. 성호경으로 마친다.

치당서실개원

서예를 제대로 하고 싶은 분에게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치당 김 규 완(그레고리오)

국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우전본당 사목회장, 완산교 교장
관동로 4거리 민중서관 옆골목 3층

☎ (0652) 232-5353(서실)
222-3583(집)

결혼상담소

좋은 날

초혼, 제혼, 인연을 맺어드립니다

상담 : 유 춘 주(세라피나)

전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삼성전자 2층

☎ 87-3325, 88-3325

영창피아노사 전주대리점
(A/S 전문점)

- 36개월 할부판매
- 중고 보상판매 환영

전상진(베드로) · 유명숙(요안나)

전북동 구서중로타리 동서증권 맞은편

☎ 252-0103~4
84-6085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전신C-T촬영 · 일반X-선 촬영
골다공증 측정 · 전신초음파 촬영
유방촬영 · 성인병검진 · 자동차적성검사

박 인 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2~3

사회복지주일

어려운 때 일수록 어려운 이들을 생각합시다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마시오. 그것은 하느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됩니다.”라고 성 요한 비안네는 말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이들을 하느님과 같게 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아는 이들은 누구나 성 요한 비안네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부터 훈훈한 인정을 이웃과 나누는 설이 다가옵니다. 어려운 경제때문에 마음을 쏟다보면 자칫 마음까지 움츠러들어 나눔과 섬김이라는 그리스도 신자 본연의 자세를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나누는 사랑이 소중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줄 도움은 많습니다. 물질뿐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시간을 내어 놓는 봉사, 정다운 말 한마디 등으로 추운 세상은 따뜻해 질 수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우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모두들 한번쯤 찾아가 가난한 이들의 모습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관명	대상	주소	전화
작은 자매의 집	정신지체아동	익산시 월성동 산 181-1	(0653)834-3555
무지개가족	지체부자유자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620	(0652)244-8120
성언복지원	양로원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883-1	(0654)471-2549
인보의집	양로원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가 361	(0652) 84-0295
야고바의집	양로원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53	(0677) 61-2588
성요셉동산	양로원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157-3	(0652)243-1440
노인돌봄의집	주간 노인 보호소	익산시 영등동 268-9	(0653) 54-7049
영보 은혜의집	나환자 양로원	익산시 함열읍 홀산리 209	(0653)862-4786
나누리 공부방	영세민아동공부방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30-5	(0652)212-2607



요심이 (1277) 김병오



원아모집

대상 : 92년 3월 1일 ~ 98년 2월 28일 출생자녀
특징 : ① 몬테소리교육 ② 종일반 운영 ③ 저소득층 자녀혜택 ④ 차량운행
접수 : 팔복 성모어린이집
전화 : 212-1618

돈보스고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모집 : 기계과(선반 00명, 기계조립 00명)
자격 : 고졸 및 중졸 만 15세~23세(군필 및 면제자) 교육기간 : 1년 원서마감 : 2월 29일(중졸), 2월 29일(고졸) 혜택 : 교육, 기숙사비 무료, 전원취업, 종고 및 인성교육, 중졸학력자 방통고 입학, 전원 컴퓨터 교육 문의 : 돈보스코 청소년센터 ☎ (02) 833-4010/4085

쥬정이 익스프레스 이시점

사다리차 · 인부대기 · 포장이사
251-2024
☎ (0652) 246-2024
223-2024
이한주(토마)

서울 가정의학과 의원

치질 전문 치료
입원하지 않고 수술 치료
무통, 초음파, 레이저
전문 의 : 이 상 재(베네딕도)
덕진광장앞
☎ (0652) 75-0550~1

결혼의 시작

메종 프랑세스

에서 준비하세요
유럽 특유의 고품격 웨딩샵
- 다양한 가격의 웨딩드레스
- 이미지 메이킹업, 웨딩메이크업
- 피부관리 전문
이 지 연(테레사)
덕진광장앞
☎ (0652) 251-1210, 1211

예수성심전교수회 성소피정

주제 : 부르심과 응답
일시 : 1998년 2월 7일~8일
장소 : 부산 본원
신청 : (051) 581-3103~5
참가비 : 10,000원
준비물 : 세면도구, 미사도구, 성서, 청소년성가



1998년 성령의 해 “텅빈 충만이신 성령”

동양의 성현들인 노자(老耆), 장자(莊耆)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이야기했다. 도무지 억지로 무순일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런 흐름, 곧 도(道)를 따른다는 말이다.

인간이 스스로 일을 꾸미는 것은 사심(私心)에서 나오는데 이러한 사사로온 욕심에서 벗어나 무심(無心), 무아(無我)의 상태가 될 때 비로소 참다운 자유 안에서 우주 만물과 조화를 이루는 참된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사사로온 욕심,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성서는 아담과 에와의 선악과 이야기로 첫들머리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베네딕도 성인은 “종교 영적인 일에서조차도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했다. 욕심 때문에 종교 영적인 일이 그야말로 작위(作爲)에 떨어지는 것, 도(道)에서 멀어지는 것, 곧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게 됨을 염려한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흐르는 분이시다. 사(私)가 없다. 욕

심이 없다. 불고싶은 대로 부는 바람이시다. 꼭권 손을 풀으시고 차갑게 닫힌 마음을 따뜻히 덮혀 여신다. 만물을 낳아 기르시지만 구속하여 묶어두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낮게 하시는 분, 무상으로 주어진 선물이시다. 자유이시며 자연(自然)이시고, 텅 빈 충만이시다. 휘돌고 있는 하느님의 기운이시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위에 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창세 1, 2-2) 그렇다. 성령께서는 1998년이라는 시간 안에 휘돌고 계시고 우주라는 공간 안에 휘돌고 계시며, 당신의 가장 사랑스런 피조물인 너와 나의 영혼 위를 휘돌고 계시고, 2000년 대희년을 맞아 새롭게 태어나고픈 교회의 노력 안에 휘돌고 계신다. 잔피를 버릴 때 성령께서는 약속하신 은총의 열매들을 내 영혼과 교회 안에 맺으시리라.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믿음, 온유, 절제”를…….

기쁨과 은총의 대축제 2000년 대희년까지 1년 11개월 6일 남았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바로 지금입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감에따라 주부들의 불안지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의 온갖 재난과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비롯되었다는 ‘밤새 난영하셨습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라는 오래된 인사가 실감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비싸다는 이유로 외면한 결과 다국적기업의 농산물이 우리 밥상을 차지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입농산물도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오르고 있어 식량 자급력이 떨어진 우리나라는 자칫 강대국의 식량속국이 될 것 같은 불안을 감출수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아직도 비싸기는 하지만 우리 것을 살리는 애정을 가진 소비자들이 늘어나면 가격도 낮아지고 우리의 식량 자급력은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재배한 신선한 식품으로 새로운 밥상문화를 만들고 독점재벌에서 해방되어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되찾을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경제를 되찾읍시다.

이지문구 유통 상사

에버그린 전복대리점
모나미
팬시, 문구, 수입필기구 전문 도매 유통
단체, 납품 및 문구점 개업상담 환영
대표 : 정 상 남(오한)
이사 : 전 현 배(다두)
군산시 월명동 18-23(명산동 사거리)
☎ (0654) 468-8894, 63-5048

청솔떡백화점

전통 떡의 모든 것, 주문배달
이 종 학(오 한)
이 승 철(모이세)
남부시장 매곡교→전주교 중간
☎ 83-0275, 84-0275

경일 조립식 건축

주택·교회·공장
실내 인테리어
일반 건축 토목
김 해 선(레이미오)
☎ (0652) 245-1611~2
FAX 245-1610

고려보석

금·은·시계
결혼 예물 전문
(목주반지 제작전문)
김 형 태(올리아노)
박 태 연(마르타)
전동성당 사거리 전북은행 앞
☎ 82-9005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믿음, 온유, 절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교 소 식

◆군산하나회(장애인협의회)

· 때 : 2월 1일(일), 12시
· 장소 : 둔율동성당

◆무주구천동리조트미사

· 때 : 매주일 오전 6시 30분
· 장소 : 리조트입구 왕성가든

◆은혜의 밤 철야기도

· 때 : 1월 30일(금) 오후 11시
· 장소 : 전동성당

◆치명자산 평일미사

화요일~금요일 : 오전 10시 30분
토요일 : 오후 4시

◆기억할 사제

· 서정수(알렉시오) 신부
1월 26일, 13주기
· 이상호(아우구스티노) 신부
1월 29일, 14주기

◆루갈다 순교기념미사

· 때 : 1월 31일(토) 오후 2시
· 장소 : 전동성당

마음의 양식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기쁨
두봉주교/224쪽/6,800원/사람과 사람

조출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범
을 보여주는 두봉주교님의 수상집

여성을 위한 101가지 묵상
김정 옮김/226쪽/5,500원/바오로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
으로 매일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묵상서

새해를 맞이하여 바치는 기도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어
새해에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말
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개정판 기도서 113쪽)

개정판 기도서/3,000원

그동안 사용 시기가 미루어졌던
'주님의 기도'를 비롯한 개정된 기도
문에 대한 교황청과의 승인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교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례와 기도는 개정
된 기도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구입처 - 바오로딸 서원

성 소 모 임

수 도 회	시 간	장 소	문 의
동정 성모회(전주)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금암동성당수녀원	(0652)253-0325
동정성모회(이리)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이리성모병원	(0653)841-0714
인보성체 수도회	매월 넷째주 오후 2시	중노송동 본원	(0652) 84-3231
바오로딸 수도회	매월 첫째주 오후 2시	바오로딸 서원	(0652)252-3398
살레시오 여자 수도회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정읍연지동성당	(0681) 33-2578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삼천동성당수녀원	(0652)226-3487
부산성베네딕도수녀원	매월 넷째주 오후 2시	호성동성당수녀원	(0652)244-0094

스포츠스 요육센터

척추관절 생체교정 요육
디스크, 좌골신경통, 요통, 두통
원 장
물리치료사 임 대 원(요셉)
영등동 동초등학교앞(우남상가 2층)
☎ (0653) 831-2952(사무실)
831-9326(자)

하얀 눈꽃 축제

금구 K-랜드 눈 썰매장

윤 병 순(요 셉)
김 혜 경(레지나)
주일학교, 복사단 단체활인
금구 목우촌 맞은편
☎ (0658) 42-0365

민 속 떡 집

맞춤떡 · 펌백전문

이 종 술(미 카 엘)
박 양 레(미카엘라)

☎ 84-4427

전주교묘 남부시장 입구

동서로 삼익피아노

피아노, 전자오르간, 전자악기 전문
종합악기판매장

김 태 우(알폰소)

황 진 숙(안젤라)

☎ (0652) 88-7717~8

동서관봉로 다가가 입구

LG 에어컨 예약

98년 신제품 15% 할인+10개월
무이자 할부

기본 설치비 무료+사은품(선품기)

할부 대금은 4월부터 불입

97년 모델 25% 할인

원 승 연(도밍고)

☎ (0652) 241-2000

전주문구센터 NEO DADA

1층 악세사리 펜시

2층 화용품, 사무용품, 컴퓨터소모품

3층 화방용품, 제도, 측량전문용품

전북대앞 본점

원 수 관(야고버)

심 경 이(마리아)

☎ 77-0079, FAX 77-0720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너 원 226-3487 사목회장 심 성 택

◎ 겸소한 생활, 국산품 애용!

1. 모임: ① 전례부, 홍보부, 테니스회, -교증미사 후
② 청년회 -저녁미사 후
③ 레지오 꾸리아 -2월 1일(주일)
2. 사회복지주일: 오늘 2차헌금 있음, 사랑의 다리 회원 가입 요망
3. 참회예절: 27일(화), 저녁미사중
4. 설 합동 위령미사: 28일(수) 전 6시, 10시미사 있음.
5. 등산회: 29일(목) 후 1시 모악산 등산 출발
6. 병자 방문: 30일(금) 후 2시, 진달래마을 미사-후 5시
7. 구역반미사: 30일(금) 후 7시 30분-제일구역
8. 주님 봉헌축일 행사: 초축복 예절-1일(주일) 교증미사중
9. 혼인 재신식: 2월 22일(주일) * 원하시는 부부 신청바람.
10. 제단제 가입: 모든 신자는 본당 제단제 가입바람.
11. 교무금 월납제: 모든 가정은 교무금 신립과 완납바랍니다.
12. 금주 전례: 해설-이정철, 독서-김진하(보나베히라) 부부
봉헌-이재철(베드로) 가정
13. 차주 전례: 해설-문송숙, 독서-양화찬(돈보스코) 부부
봉헌-김정호(요셉) 가정

□ 지난주 봉헌금: 1,854,800원 □ 교무금: 2,158,0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F A X 221-9842 수 너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동 호

◎ 주님, 당신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시니라.

1. 금주 모임: ① 성도회 -낮미사 후
② 본당유지비 결산보고
2. 설 대축일 합동 위령미사: 28일(수) 전 10시
3. 설 휴무: 27일(화), 29일(목)
4. 차주 모임: ① 꾸리아 -전 9시
② 편집본과 회의, 울뜨레야-낮미사 후
* 성전신축 2차헌금 있습니다.
5. 예비신자 환영식: 2월 15일(일) 낮미사에
* 예비신자 인도봉헌을 바랍니다.
6. 청소 봉사: 31일(토) -겸손하신자의 모후Pr.
7. 폐품 정리: 31일(토) -사랑하을 모후Pr.
* 폐품을 가져오시기 어려운 가정은 사무실에 접수 바람.
8. 금주 전례: 새벽-유희정, 낮-홍정희, 저녁-김영중
9. 차주 전례: 새벽-곽순옥, 낮-최정순, 저녁-정인자
10. 금년도 교무금 신립과 지난해 미납금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 무 실 74-9260 주임신부 오 현 택
F A X 74-9260 수 너 원 74-9262 사목회장 유 준 웅

◎ 쉬는 교우에게 "순정미"를 전달합니다!

◎ 오늘: 사회복지주일 2차헌금(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실천)

1. 금주 모임: ① 애령회, 방주회 -공식미사 후
② 청년공동체 -저녁미사 후, 2회의실
2. 차주 모임: 요아킴회, 안나회 -공식미사 후
* 차주-빈집시외회비 납부일
3. 설 합동 미사: 28일(수) 전 10시 선영을 위한 미사예물 접수-사무실
4. 부제 서품: 2월 2일(월) 전 10시, 중앙성당, 박성문(요한)
*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5. 주님 봉헌 축일(초축복): 2월 1일 공식미사중
* 제대초, 봉헌초 봉헌은 구역(반)장 또는 사무실에 접수바람
6. 초등부 개학: 31일(토)부터, 교리-후 3시, 미사-후 4시
7. 서신신협 6차 정기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많은 참석 바람.
8. 전입가정 환영: ① 조창영(스테파노) T. 76-0090, 현대A 106-701
② 성주용(헤레나) T. 75-8650, 동아A 103-701
③ 김경옥(비아) T. 254-9417, 선수촌A 101-301
④ 안순주(엘리사벳) T. 77-1747, 신일A 101-309
9. 부지헌금 감사!: 송태환 70만, 양재천 10만 계 283,898,180원
10. 독서: 금주(새벽)-이동주, 박영실, 차주-신국중, 김덕남
(공식)-이철수, 문옥래, 차주-김종환, 이성순
11. 미사 안내: 금주-겸손하신 모후Pr., 차주-황금 궁전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1,709,840원 □ 교무금: 2,845,000원

용매리 주임신부 88-3872 사 무 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 너 원 81-0441 사목회장 이 규 세

◎ 주님, 당신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시니이다.

◎ 새해 하느님의 축복 가득히 받으십시오.

1. 모임: ① 꾸리아 -오늘 공식미사 후
② 요셉회, 사라회 -오늘 공식미사 후
③ 사목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④ 테니스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초 축복: 2월 1일 다음주일 공식미사중 * 봉헌 받습니다.
3. 오늘은 사회복지주일: 북한 형제를 돕기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4. 설 합동 위령미사 예물 접수하세요: 설날미사-11시
5. 설 가래떡 판매: 많은 협조바랍니다.
6. 피정중인 김안나 수녀님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7. 수고하셨습니다: 제대회장-박춘자(로사)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애(아델라)
8. 청소 봉사: 1, 2구역

□ 지난주 봉헌금: 940,800원 □ 교무금: 1,290,000원

효자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 현
수 너 원 223-3822 F A X 223-3821 사목회장 임 해 건

◎ 오늘은 사회복지주일: 2차헌금 있음

◎ 올해는 '본당 선교 계획' 실천의 해입니다.

- ① 예비신자 인도, 냉담교우 회도, 거주불명자 확인 및 회도에 노력 합니다. ②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작은 나눔이 받는 이에게는 크 나큰 기쁨을 줍니다. * 선교대상자의 활동을 끝내신 분은 선교카드 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주 모임: 전례해설단회의 -25일(일) 10시 30분미사 후
2. 설날 미사시간: 전 6시, 10시 30분 3. 설 합동위령미사 예물: 사무 실에 접수바람 4. 주님 봉헌 축일: 초축복-2월 1일(일) 공식미사중 * 제대초 봉헌-사무실에 접수바람 5. 유아 세례: 31일(토) 후 4시
6. 유진영(바오로)부제 사제서품식: 2월 2일(월) 10시, 중앙성당 * 컷미사-2월 3일(화) 10시 30분, 효자본당
7. 이웃사랑 기금 내주시 분: 김희성 30만, 한순대 10만, 임채영 2만, 이준복 3만, 강숙희 1만, 강민수 2만, 이혜숙 2만, 이현숙 1만, 김경자50만, 이동임 3만, 김진희 5만, 변성수 10만, 남용식 10만, 박규선 1만, 백성수 3만, 채완병 50만, 고금순 5만, 장순규 1만, 신인철 10만, 이승자 5만, 이성렬 4만, 김경자 10만, 한병희 10만, 이희형 2만, 김광식 1만, 김근수 10만 * 감사합니다. 8. 다음주 미 사안내 및 차봉사: 송정A 구역 9. 구역장 임시모임: 2월 1일(일) 10시 30분미사 후, 교리실 10. 전입가정 환영: ① 박대규(바르나 바) 삼천주공 301동 212호 ② 전봉희(율리야)-삼천주공 113동 207호 ③ 박문선(엘리사벳) 광진목화상가 29호

□ 지난주 봉헌금: 1,393,650원 □ 교무금: 3,164,000원

효자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보좌신부 226-0443 수 너 원 223-0715 보좌신부 강 훈 호
F A X 226-1044 사목회장 김 규 완

◎ 성전 신축을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누계 - 838,645단

◎ 사회복지주일: 2차헌금 실시합니다.

1. 금주 모임: ① 승리의 여왕 -공식미사 후
② 요셉회 정기총회
③ 반회장 준비모임 -30일(금) 10시미사 후
2. 설 합동미사 예물: 먼저 가신 선영을 위하여 정성껏 미사예물을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 27일(화) - 전 10시, 28일(수) - 전 6시, 10시 30분 29일(목) - 후 7시
3. 양초 축복: 2월 1일(일) 공식미사중
* 제대초, 가정용 봉헌하실 분은 사무실에 접수
4. 98년도 교무금은 자진 신립하여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5. 성령세미나: 2월 2일(월)~7일(토)
6. 예비신자 환영식: 2월 18일(수) -저녁미사 후 * 많은 인도 바랍니다.
7. 차주: 양초축복, 천주의 모친Cu., 사제양성후원회, 여성분과회, 청년연합회
8. 금주 전례: 해설-이옥희, 독서-김영호, 강남주
봉헌 안내-김용준, 김옥자 부부
9. 차주 전례: 해설-김용만, 독서-임정준, 임효정
봉헌 안내-정영환, 최영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579,350원 □ 교무금: 4,004,000원